

## 31 자동차 연마, 조립업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성별	남성	나이	36세	직종	자동차연마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2000년(만 23세)에 □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도장부 중도반 연마장에서 2002년 11월까지 연마작업을 하였고 이후 △공장에 입사하여 2012년 10월까지 조립부 의장반에서 조립업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2년 10월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 2 작업환경

○○○은 2000년(만 23세)에 □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도장부 중도반 연마장에서 2002년까지 약 1년 11개월간 전착도장된 차량의 도장불량 수정을 위한 연마작업을 하였다. 전착도장 수정작업은 도장 차량에 과도한 도막이 형성될 경우 도막 두께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작업으로 근로자는 텍레그라고 불리는 송진가루가 묻은 형궂으로 표면을 닦는 작업과 수공구인 연마기를 사용하는 연마작업을 하였다. 도장 수정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 등의 화학물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연마 시 페인트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거 문헌을 참고하여 보면 차체 도장 수정을 위한 연마작업 시 납 등의 중금속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공장에 입사하여 2012년 10월까지 조립부 의장반에서 조립업무를 하였다. 의장반에서의 업무는 전장배선의 정리 작업, 플로어매트 정리 작업, 페달 설치 등 차량 내부 부속품의 조립작업으로 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이었다. 의장반에서의 조립업무 시에는 위암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분진, 중금속\_납)

## 5 의학적 소견

○○○은 2011년경부터 간헐적으로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세가 있었으나 증상 심하지 않아 치료받지 않고 있다가 2012년 9월경부터 소화불량, 속쓰림의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2012년 10월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진행성 위암진단 받았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24세가 되던 2000년에 □공장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도장부 중도반 연마장에서 2002년까지 약 1년 11개월 근무하였고, 이후 △공장에 입사하여 2012년까지 조립부 의장반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암과 관련된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고무 제조업, 전리방사선(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제한적으로는 석면, 무기 납 화합물, 아질산염 및 질산염이 있다. 직무분석 및 작업환경 고찰결과, 위암과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 직업성 유해인자에는 노출가능성이 낮았고, 무기 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